

한전, 위기대응·내부개혁 실행 팔 걸었다

비상경영·혁신위원회 발족
분과별 외부 자문위원 선임
현안 토론회...자구대책 논의
혁신과제 지속발굴 변화 박차

한국전력공사는 25일 오전 11시 김동철 사장 및 경영진, 지역본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사 비상경영회의를 개최하고, 강력한 위기대응 및 내부개혁 실행을 위해 사장이 직접 주관하는 '비상경영·혁신위원회'를 발족했다.

한전의 '비상경영·혁신위원회' 지난 5월 사장 부재기간 동안 상임이사 공동 주관으로 운영해 온 기존 비상경영위원회를 김동철 사장을 중심으로 확대·재편한 것이다.

한전 비상경영·혁신위원회는 위원장인 사장을 중심으로 '재무위기 대응', '조직·인사 혁신', '신사업·신기술', '미래 전력망', '원전·신재생' 등 5개 분과로 구성되며, 분과장인 부사장이 분과 내 워킹그룹 구성과 핵심과제 발굴·이행 등 분과 운영 전반을 총괄하게 된다.

또한 한전은 혁신과제 발굴 및 실행 과정에서 외부 전문가의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시각을 상



한국전력공사 김동철 사장이 25일 열린 비상경영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제공

시 반영하기 위해 분과별로 외부 자문위원을 선임할 예정이며, 현장 여건을 반영한 혁신과제 운영·실행을 위해 지역·건설본부 직원들도 분과 내 워킹그룹에 참여시킬 계획이다.

한편 이날 위원회 공식 발족 직후 개최된 '비상경영 및 경영혁신 실천 결의' 행사에서 참석자들은 ▲재무정상화 ▲신사업·신기술 주도 ▲신재생·원전사업 적극 추진 ▲업무효율화·고객

서비스 개선이라는 비상경영·경영혁신의 방향성과 목표를 확인하고, 강력한 개혁 의지를 바탕으로 특단의 추가 자구노력 발굴과 경영정상화 조기 달성을 위해 가용한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

로 다짐했다

위원회 발족식 및 결의행사 이후에는 사장이 주재하는 현안 토론회가 개최됐다. 토론회는 '재무위기 극복', '신사업 활성화', '안전경영 체계 정착' 등 핵심 현안에 대한 주제 발제에 이어, 이수별 대응전략 마련·실행, 대내외 공감대 형성 방안 등에 대한 참석자들 간 열띤 토론이 전개됐으며, 신속하고 차질 없는 자구대책 이행 및 국내외 신사업 부문 경쟁력 강화와 관련한 다양한 의견과 해법 등이 제시됐다.

이날 김동철 사장은 "한전 스스로의 내부 개혁 없이는 절체절명의 위기상황을 도저히 극복할 수 없다"며 "기존 자구노력에 더해 특단의 추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임직원 모두가 주인 의식을 갖고 '제2의 창사'라는 각오로 혁신에 적극 동참해 국민에게 사랑 받는 '글로벌 종합 에너지기업'으로 거듭나자"고 강조했다.

한편 한전은 앞으로 발굴한 혁신과제를 속도감 있게 이행하는 한편, 외부 전문가 및 내부 구성원들이 참여하는 전사 토론회 등을 거쳐 추진성과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기존 과제들을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며 전력산업의 시대적 요구 및 정부정책 방향과 연계해 새로운 혁신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전기요금에 주로 의존하던 과거의 구조와 틀을 탈피하기 위한 과감한 변화와 혁신을 적극 이끌어 나갈 예정이다. /오지현 기자

“추석맞이 헌혈로 지역사회 행복 나뉘요”

한전KDN, 헌혈·기부행사

한전KDN이 추석을 맞아 지역사회와 함께 행복나눔을 위한 다양한 활동으로 어려운 이웃과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전KDN은 최근 한전KDN 본사에서 추석

맞이 사랑의 헌혈로 혈액수급에 힘을 보태는 한편 헌혈에 참여한 직원들의 자발적 헌혈증서 기부를 통해 연말 소아암 환자들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같은 날 나주 아동센터와 함평 등 광주·전남지역 취약계층 복지시설 3곳에 지역농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기부행사에도 나섰다. 이번 기부행사는 광주·전남지역에서 생산한 지역생산물품을 공공기관이 구매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구매한 지역생산물품을 지역사회 취약계층에 지원해 추석 명절의 따스함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한전KDN 관계자는 “추석 명절을 맞아 지역 농가 경제를 살리고 소외계층을 돕기 위해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오지현 기자

사학연금, PE 블라인드 펀드 위탁운용사 3곳 선정

총 1,500억...각 500억씩 출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하 사학연금)은 PE 블라인드 펀드를 운용할 위탁운용사로 브이아이피파트너스, 아이엠엔인베스트먼트, 한앤컴퍼니 3곳을 최종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사학연금 국내 PEF 출자규모는 총 1,500억

원 이내로 3곳의 위탁운용사에 각 500억원씩 출자할 예정이다. 사학연금은 지난 7월 24일부터 제안을 접수받아 1차 정량평가 실시 후 6개 숏리스트를 선정했으며, 현장실사를 실시한 결과를 토대로 지난 22일 대체투자위원회의의 정성평가를 거쳐 3곳의 위탁운용사를 최종 확정했다.

송하중 이사장은 “우수한 PEF 위탁운용사를 선정해 투자함으로써 사학연금 기금의 포트폴리오 다변화와 안정성에 기여하고, 지속적으로 기금운용수익률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사학연금은 지난해 PE 블라인드 펀드 위탁운용사로 스카이레이크에쿼티파트너스, 스톤브릿지캐피탈, 스티인베스트먼트, 아이엠엔프라이빗에쿼티 등 4곳을 선정해 총 4,000억 원을 투자했다. /오지현 기자

콘진원, 스웨덴서 ‘신기술융합콘텐츠’ 선봬다

내달 4일까지 스톡홀름 한국문화원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콘진원)이 주관하는 신기술융합콘텐츠 글로벌 페스티벌 ‘더 어울림’이 스웨덴 스톡홀름 한국문화원에서 26일 개최됐다.

더 어울림은 대한민국 대표 콘텐츠 IP와 기술간 융복합으로 구성된 콘텐츠 40여 종을 선보이는 소비자·기업 대상 행사로 스웨덴 스톡홀름을 시작으로 10월 영국 런던, 12월 일본 도쿄에서 연이어 개최될 예정이다.

이날부터 10월 4일까지 열리는 더 어울림 in 스톡홀름은 지난 5월 개원한 스웨덴 한국문화원에서 36여 종의 신기술융합콘텐츠를 관람객들에게 선보이며, 27일까지 스웨덴 대표 액셀러레이터 기관인 ‘에피센터’에서는 B2B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행사 기간 스웨덴 한국문화원에서는 ▲AI 저작도구 ▲AI 콘텐츠 ▲미디어아트 ▲

VR 콘텐츠 ▲메타버스 콘텐츠 ▲블록체인 콘텐츠(NFT) 등 총 6개 테마의 전시를 진행한다.

에피센터에서는 게임, 패션, 음악 등 북유럽권에서 인기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워크숍, 비즈니스 네트워킹 등 B2B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크리에이티브마인드 ▲에이아이바 ▲기어이 ▲컴투스스코카 ▲라이터스컴퍼니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에피센터에는 구글, 아마존웹서비스, 스포티파이 등 글로벌 기업과 300여 개 스타트업 관련 기업이 입주해있으며, 이번 행사를 통해 국내기업들과 네트워킹 기회를 갖는다.

한편, 콘진원은 글로벌 VR 기업 피코로부터 VR 기기 8대를 지원받아 국내 콘텐츠기업과 함께 제작한 게임, 스포츠, 음악 등의 VR 콘텐츠를 선보일 예정이다. 이밖에도 행사 관람객들이 콘텐츠 체험 과정에서 국내 화장품이나 간편식 제품 등을 접할 수 있는 현장 이벤트도 진행된다. /오지현 기자

“저희 업소는 엄선된 **국내산 한우암소**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우사랑

한우를 사랑해서 머무는 곳!
최상의 품질로 정성껏 만듭니다.

고기류

꽃등심
갈비살

점심특선

한우생불고기
한우버섯전골
불낙전골

식사류

갈비탕
생고기비빔밥

한우사랑

예약문의 062. 674. 3292
광주광역시 남구 효덕로 150 (노대동)